

에도시대(1603-1867년)부터 메이지 시대(1868-1912년)에 걸쳐 나카무라·아와가마치는 북부의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 사이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역참 마을로서 번창했으며, 전성기에는 40곳이 넘는 상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. 1876년에 개량된 ‘이쿠노 광산로 마차길’(현재의 ‘은의 마차길’)이 완공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이동은 더욱 편하고 신속해졌습니다.

에도시대에 지어진 두 개의 건물인 다케우치 가문 주택과 옛 난바 주조가 현재도 남아있습니다. 마차길의 공민관 벽에는 마치 에도시대처럼 나무판이 사용되었고 지역 쓰레기 집하장은 옛날 창고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또한, 과거 반탄철도 승객이 마차로 갈아타던 ‘아와가의 역참(우마야)’도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곳입니다.

이 지역에서는 ‘센레이차’가 생산되고 있으며, 호지차와 분말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5월에는 지역 다원에서 찻잎 따기 체험이 진행되며, 마을에 돌아가면 찻잎을 튀김으로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.